

<제 644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은행

◆ ‘불타는 청춘 베테랑카드’ 출시 기념 이벤트 경품 증정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본점에서 ‘불타는 청춘 베테랑 카드’ 출시 기념 이벤트의 당첨 고객에 대한 경품 증정식을 가졌다.

은퇴 이후에도 하고 싶은 일을 능동적으로 찾아 도전하는 50대 이상을 일컫는 ‘액티브 시니어’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을 겨냥해 지난 5월, 신용·체크카드를 비롯해 예·적금, 입출금통장으로 구성된 ‘불타는 청춘’ 패키지 상품을 출시했다.

이 중 ‘불타는 청춘 베테랑 카드’의 출시를 기념해 카드를 가입한 만 60세 이상의 고객을 대상으로 ‘베테랑 고객을 찾아라’ 이벤트를 실시하여 총 23명의 당첨자를 발표했으며, 1등 1명에게는 편백나무 반신욕기, 2등 2명에게는 최신 녹즙기, 3등 10명에게는 목·어깨 마사지기, 4등 10명에게는 교정의자를 경품으로 제공했다.

해양에너지

◆ 한국광기술원과 업무협약 체결



해양에너지(사장 김형순)는 지난 12일 한국광기술원 빛고을룸에서 한국광기술원(원장 신용진)과 광융합산업 및 에너지분야의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에너지산업분야 광융합기술 관련 연구 및 장비개발, 미래 시장 진출, 전문인력양성 등에 있어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II. 광주경충 소식

<중장년센터 제27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운영>



본회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지난 12일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9층 특강실에서 제27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물렉스 업체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일 중심의 경력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했으며, 금번 참여한 인원 22명 모두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사무국 일지 (08.09 ~ 08.13)	
08.09(월) * 노동협력관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 광주형일자리 심사위원회의	08.12(목) * 중장년센터 제27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경제 분과위원회의 * 노동시간단축지원금 심사위원회의 * 광주청년일경험드림 교육위원회의
08.11(수) * 전남지노위 심판회의 * 광주청년일경험드림 홍보위원회의	08.13(금) * 금요조찬포럼 휴강 (코로나19)

1. 노사 동향

■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토론회」 개최(8. 11)

-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토론회」를 개최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대한 문제점 지적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7. 12 입법예고를 한 뒤 40일간 의견 수렴 진행

-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보완입법의 우선적 추진을 강조하는 한편,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정안의 많은 부분이 불명확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
- 특히,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이나 시행령 제정안만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

- 정진우 한국과학기술대학교 교수(발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과 경영자를 매우 강하게 처벌하는 만큼 법률로 적용요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의무로 엄벌에 처하도록 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

- 한편, 경총은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안)만으로는 기업들이 법규를 완벽히 준수하기 어렵고 산재예방의 효과성도 없는 만큼 반드시 보완입법이 추진되어야 하며,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서는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조만간 정부에 제출할 예정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

- 근로시간면제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경사노위 산하 근로면위는 8. 10 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의

- 근면위는 근로시간면제제도 개편 논의에 앞서 노사공익위원들은 현장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전문가 3인과 노사위원 각 1인이 참여하는 실태조사단을 구성하기로 결의
- 실태조사 기간, 대상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단에서 논의해 전원회의에 보고하기로 결정

○ 한편, 금번 3차 전원회의에서 황효정 고용부 노사관계 법제과장이 ‘근로시간면제 제도 도입 배경 및 1·2기 근면위 논의 결과’에 대해 발제

- 고용부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금지가 시행되지 않고 유예되는 기간 동안 노사 자율로 전임자 수를 축소토록 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전임자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2009. 12. 4 노사정 합의를 거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2010. 7. 1 시행하고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

[참고] 2009. 12. 4 노사정 합의사항 중 근로시간면제 관련 내용

가.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금지 제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노조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사 교섭·협의를,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관련 활동에 대해 사업장 규모 별로 적정한 수준의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노사정이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시행령에 반영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2010년 7월부터 시행한다.

Ⅲ. 노사 및 법제동향

2. 법제 동향

■ 김영주 의원(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8. 5)

- (발의 이유) 현행법 제정 당시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가 제대로 반환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여 법의 목적에 채용서류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나, 채용서류 반환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지적
- 또한 구인자가 구직자 채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나, 이것만으로는 구직자의 권리를 구제하기에 한계
- (주요 내용)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구인자가 구직자를 채용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그 근로조건은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에 따르도록 명시

■ 임종성 의원(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8. 5)

- (발의 이유) 현행법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
 - 그러나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하여 고객응대근로자를 즉시 분리조치 하지 않음으로써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
- (주요 내용)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를 폭언등을 하는 고객 등 제3자와 즉시 분리조치 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

■ 이수진 의원(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8. 5)

- (발의 이유) 사용자와 근로자간 협의를 통하여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기구인 노사협의회는 근로자간의 이해관계에도 다양하게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여기에 참석하는 근로자위원은 공정하게 선출될 필요
 - 그러나 최근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위원의 선출을 둘러싸고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를 방지할 기구나 제재 수단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 필요
- 또한 노사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공지하도록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공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강제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요청
- (주요 내용)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위원의 선출과정을 관리·감독하고,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사용자가 공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 부과